

# The Future \_ Real Power X.

## 내면의 분노를 잠잠하게 하는 온유함의 능력

### 1. 반응

신앙은 반응으로 훈련되어 진다. 반응은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보여준다. 육은 언제나 죄에 반응한다. 겉모습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다.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다. 잠잠히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나의 신앙의 성숙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숙한 사람은 겸손하다. 겸손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순응의 상태이다. 솔로몬의 전도서 고백이 겸손의 정점이다.

[전도서 1:2]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주의자의 고백이 아니다. 진짜 가치를 발견하니 내가 소중하게 여기며 반응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는 것이다. '뭐 때문에 저렇게 치열했지?'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다. 진리와 가치있는 일에만 반응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혜'이다.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다. 그래서 지혜자에게 '인생'을 물어보라 하는 것이다. 오늘 내 안에 가장 우선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인가? 사울을 예로 들어보자.

[사무엘상 18:7-9] 7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에게 다윗이 원수가 된 시작점이 바로 위의 말씀이다. 오늘 사울의 내면은 여인들의 칭찬에 대한 반응으로 정확하게 나타난다.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넉넉한 마음으로 다윗을 더 축복해 줄 수 있었을 것이고, 진심으로 기뻐했을 것이다.

### 2.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성품의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1:4]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4 ~so that through them you may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and escape the corruption in the world caused by evil desires.

영어로 보면 '신성-divine nature'이다. 자연스럽게 장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위적이지 않는 상태이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는 상태를 하나님의 성품이라 한다. 육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예수님이 원수같은 유다를, 당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또한 이 원리의 적용이다. 가난한 자를 보고 반응하시고, 묶이고 갇힌 자를 보고 반응하셨다. 아픈 자들을 보고 반응하셨다. 이 모든 반응이 예수님의 성품이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마지막 훈련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이다.

### 3.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

성품의 훈련에서 마지막 훈련은 '온유함'이다. 온유함이 왜 중요한가?

[마태복음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팔복은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복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그중에 온유한 자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의 기업 때문이다. 땅은 '결과'이다. '보상'이다. 온유한 자가 땅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결국, 사람의 역사는 '땅'의 전쟁이다. 살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 그중에 '비옥한 땅'에 대한 전쟁이다. 비옥한 땅을 얻으면 삶의 풍요함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옥한 땅을 얻기 위해 인간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왔다.

왜 온유함의 훈련이 마지막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얻는 마지막 훈련을 '온유함'의 단계로 두신다.

온유한 자가 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기업이란 무엇인가?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누가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아들'이다. 아들은 태어난 자이다. 만들어진 자가 아니다. 자연스럽게 태어난 자를 말한다. 아들은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물질적 가치와 바꿀 수 없는 존재이다. 탕자의 비유를 보라.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다. 왜 그런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소중한 존재에게 주어지는 유업의 땅은 가장 좋은 땅이다. 엘림과 같은 곳이다. 에덴과 같은 곳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말한다. 심는 일마다 삼십 배, 육십 배, 백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을 말한다. 그 땅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이시다. 결국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결실을 맺는 땅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 유업을 얻는다.

[창세기 3: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은 쓸모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다. 이 땅이 어떻게 유업이 될 수 있는가? 심는 것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의해서 죽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이것이 죄로 인해 범죄 한 아담 자신이다. 자녀들에게 더 이상 유업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아담의 땅이었다.

#### 4.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원어로 보면 온유함은 '프라위스'이다. 이 단어가 '동물'에게 쓰이면 - 길들인, 유순한 짐승(길들여진) - 짐승을 길들이거나, 짐승이 화나거나 흥분할 때 달래거나 진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 분노, 난폭, 매정, 잔인하지 않고 온화한, 친절함, 온유함, 즐거운 상태를 의미한다.

온유함은 적으로부터 오는 인정사정 없는 가혹한 행위가 아니라, 반대로 친구에게 예상되는 어떤 것을 말한다. '온유한 자는 (프라위스) 분노와 충동, 격동 등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자'를 말한다. 온유함은 '훈련'으로부터 온다. 하루 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세가 받았던 마지막 훈련이 '온유함'이다. 온유함이란? 육신의 마음과, 감정과, 힘으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 5. 분노

결국, 온유함은 '분노'에 대한 훈련이다. 왜 온유함의 훈련이 분노를 제어하는 훈련이겠는가? '분노'는 사탄의 성품이다. 분노는 '파괴'의 속성이다. 분노는 일을 그르치게 하는 도구이다. 분노가 있는 곳의 결말은 후회이다. 분노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위험한 상태이다. 지금은 엘리야의 시대와 같다. 즉, 분노하는 이세벨의 영이 가득한 시대이다.

[열왕기상 19:1-2]

1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분노로 가득 찼다. 분노는 결국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파괴로 간다. 바로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짐승'의 상태이다. 온유함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라. 성경은 온유함이 없는 상태를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짐승'이라 말하고 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훈련된 자들이다.

분노가 가득한 세상이다.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 강력한 때이다. 결국 마귀의 목표는 유업을 유산시키는 것이다.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훈련된 말로 준비되어라. 철저히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훈련된 명마가 되어, 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그 기준이 온유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라.